

박영숙 본래의 이사장

지난 7월 17일 인권의 한국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3남매와 함께 아픈 14층에서 뛰어내려서 막대한 손해를 한 사건도 큰 충격이 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은 가족하고 아이들 셋째를 데리고 도망치려 하려 하다가 이 국부로 카드넷 도둑에 시달려야 했고 그날 밤의 거인과 영웅미를 경험해야 하는 행진이 새로 남편이 치르려지 않은 중과하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도 없는에서 절망한 것이다.

경제협력 개발은행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한 자살은 2000년 454명, 2001년 525명 2002년 6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자살자의 직업 분류에서 보면 무직자나 기혼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론적 논의에서 보면 여성가족부가 빈곤상황에 노출된 계층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가족의 비율은 1962년 12.9%에서 1990년 21.4%에 이르고 있다. 2002년 빈곤층 여성가족부 비율이 1990/1993 1.68배에서 1999/1991년 2.16배로 중대리의 여성 빈곤층 추세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빈곤은 최후의 경우를 볼수록 이미 여러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빈곤여성 가족부는 치매, 우울증, 자살, 노년병 등, 가족의 건강문제를 제대로 접할 수 없는 불행한 아내 빈곤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자기의 의식을 상한 없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인간적' 맺음 뒤에 대주어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딸에게 집안에서 대를 강요하는 사건이 이러한 등 미미세대의 인권이 약화되는 현상이 되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빈곤탈출의 희망이 없는 어린이의 수는 90만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큰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동시에 물론 실업률을 낮추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화되면서 V. 정부의 대책은 불충분한데 반한 대책으로 전무하다는 것이 사회정책의 약점을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시작지대를 눈앞에 두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여성재단에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최근 본래의 <여성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모임 등 운영해왔지만 이런 그림자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의 현실적 실효성은 정부에서 이런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보일 수 있다. 빈곤의 악순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성취하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2000년대'를 V.정책의 타이틀 크게 강조하는 정책화되고 함께 사회정책 약자들에게도 약간의 기대를 주는 빈곤여성들의 현실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성의 빈곤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박영숙(본재단 이사장)

지난 7월 17일 인천의 한 주부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3남매와 함께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리는 막다른 선택을 한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은 가출하고 아이들 셋 때문에 돈벌이마저 어려웠던 이 주부는 카드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고 그날그날의 끼니와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남편이 저분하지 않음 중고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도 없는데서 절망한 것이다.

경찰청 자살통계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한 자살은 2000년 454명, 2001년 525명, 2002년 6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자살자의 직업 분류에서 보면 무직자와 가정주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이론적 논의에서 보면 여성가구가 빈곤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구주가의 비율은 1962년 12.9%에서 1990년 29.4%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빈곤층 여성가구주 비율이 1970/1973 1.68배에서 1990/1991년 2.16배로 증대되어 여성의 빈곤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여성의 빈곤화는 세습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데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빈곤여성 가구주는 자녀교육은 물론 노인부양 문제, 가족원의 건강문제 등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빈곤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밖에 없는 확률이 높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자녀들이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인천사건' 며칠 뒤에 대구에서는 어머니가 중학생인 딸에게 집 안방에서 매춘을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미래세대의 인권이 말살되는 현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빈곤탈출의 희망이 없는 어린이의 수는 90만명을 헤아리고 있다고 한다. 큰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는데서 ~~많은~~ ^{많은} 전망을 하기 어렵다. 정부의 대책은 불충분한데 민간대책은 전무하다는데서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눈앞에 두고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여성재단에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최근 본재단이 <여성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노력의 현실화는 정부뿐만이 아닌 사회전체의 협력으로만 가능하다. 빈곤의 악순환의 탈출구는 찾아야만 한다.

참여정부는 지향하고 있는 '2만불 시대'를 성취하기 위해 경제의 파이를 크게 하는데 주력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약자중에서도 약자인 기댈 곳 없는 빈곤여성들의 화급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